

發明科學文化財를 國寶로

渾天時計등 3점…寶物15點도 지정

文公部는 發明·科學技術에 관련된 문화재들 중 淀天時計등 3점을 國寶로, 大東輿地圖등 15점을 寶物로 각각 지정했다. 國寶로 지정된 문화재는 지금까지 총 2백 27점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미술품과 건축들이었고 발명기술에 관련된 국보는 慶州 첨성대(국보 31호) 1점뿐이었다.

◇ 國 ▲天 象列次分野之圖刻石(昌德宮·1395) ▲報漏閣自擊漏(德壽宮·1536) ▲渾天時計(高大박물관·1669)

◇ 寶物 ▲複刻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세종대왕기념관·천문도·1687) ▲水標(세종대왕기념관·강우량 측정장치·18세기초) ▲崇禎 9년 銘新法地平日晷(세종대왕기념관·수평관측기·1636) ▲新法地平日晷(세종대왕기념관·해시계·1710년대) ▲簡平日晷渾蓋日晷(세종대왕기념관·해시계·1785) ▲大邱宣化堂測雨臺(국립기상대·측우기·1770년) ▲觀象監測雨臺(국립중앙기상대·측우기대석·조선초기) ▲昌德宮測雨臺(英陵展示館·측우기·1782) ▲仰釜日晷 I(昌德宮·해시계·17세기 후반) ▲仰釜日晷 II(昌德宮·해시계·18세기 전반) ▲風旗臺(昌德宮·풍향계·18세기) ▲風旗臺(景福宮·18세기) ▲新法天圖병풍(속리산법주사·별자리운행도·1742) ▲坤輿萬國全圖(서울대박물관·세계지도·1708) ▲大東輿地圖(誠信여대박물관·조선지도·1861) ▲觀天臺(昌慶宮·천체관측시설·1688) <表紙 및 50面 기사 참조>

韓·美 知的所有權 保護합의

11月 國際工所權 세미나 開催 예정

지난 7월 1, 2일間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經濟협의회에서 「物質特許 등 知的所有權 保護문

체를 韓·美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國내 각 일간신문에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每日經濟가 지난 7月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韩·美경제협의회 工業所有權分科委員會에서는 美國측이 우리나라의 特許權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제도와 비슷해 特許期間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韓·美 양국은 韓國 特許廳의 전 산화를 위한 技術情報提供과 特許廳 직원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오는 11月 서울에서 開催될 아시아 태평양지역 工業所有權 세미나에 美國측 대표와 전문가를 파견키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오는 11月에 開催될 아시아 태평양지역 工業所有權 세미나에는 약 2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에 관련한 큰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物質特許 외국壓力대비

民間協議會 설립하기로

外國의 物質特許導入압력에 대처, 관련업계와 학계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物質特許民間協議會가 설립된다.

이달내로 구성될 예정인 同협의기구는 物質特許導入의 時期·範圍등 관련문제를 검토·분석한 후 政府에 전의하는데 관련업계·학계·연구소 및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된 20인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그동안 物質特許등 이론 바 知的所有權保護를 美國이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保護原則에는 찬성했으나, 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 허용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年 亞洲6個國에 86件 출원

特許 5件·商標 34件 획득

우리나라는 지난 83년도에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31건의 특허를 출원, 이 가운데 5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83年度에 방글라데시 1건, 인도네시아 9건, 이란 3건, 필리핀 11건, 싱가포르 1건, 태국 6건 등 모두 6개국에 3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우리나라가 출원한 특허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 1건이 등록된 것을 비롯, 이란 2건, 싱가포르 1건 등 모두 5건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商標는 인도네시아, 이란, 泰國 등 7개국에 모두 54건을 출원, 이 가운데 34건이 등록됐으며 意匠은 방글라데시에 1건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기간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臺灣 25건, 인도네시아 1건, 이란 1건, 필리핀 3건 등 모두 30건을 출원, 3건(臺灣)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업 辨理士 매년 增加

工所權 관심높아 79年부터 10~20名

工業所有權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工所權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업 辨理士 수가 매년 增加하고 있다.

大韓辨理士會(회장 任石寧)에 따르면 금년 7월 말 현재 大韓辨理士會에 登錄된 辨理士는 모두 176명으로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67명이 개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개업 辨理士 수는 지난 73년 말에 모두 287명이 登錄, 약 절반인 147명이 개업한 이래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오다가 79年부터 增加 추세로 전환, 80年 92명, 81年 104명, 82年

122名, 83年 130名, 84年 153名 등 해마다 10~20名씩 증가해 왔다.

한편 금년 7월 말 현재 개업 辨理士를 자격취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特許廳 출신 辨理士가 전체의 40.7%인 68명으로 가장 많고 辨理士시험 출신이 58명(34.7%), 辯護士 출신 41명(24.6%) 등으로 되어 있다.

또 지역별로는 개업 辨理士의 90% 이상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공별로는 전체의 57%가 法律學을 전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技術情報유통센터 門열어

産業研究院서 7月 30日에

産業研究院(KIET) 부설 技術情報流通센터가 지난 7月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문을 연 技術情報流通센터는 국내가용기술의 활용알선, 적정선진기술의 도입알선, 기술수출상담·技術情報의 국제적 교류, 企業·學校·研究所間의 技術開發·調查 및 알선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技術情報의 전산화로 중복연구·중복투자·特許紛爭 등을 막지하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共同商標制度」導入해야

安定된 市場確保, 對外聲價向上 위해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발표한 연구자료 「중소기업 共同商標化 및 무역소조합도입방안」에 따르면 中小企業은 固有商標化的 부진으로 인하여 輸出品의 경우 優秀商品도 바이어 요구상표로 輸出되고 있어 聲價向上 기회를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거래선 전환이 심하여 安定된 市場을 確保할 수 없으며 교도의 전문성생산체제의 형성이 부진한 실정이며 또한 내수시장에서도 輸入商品보다 선호도에서 열세하여 수입대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상표의 세계화 또한 어려운 실

KIPA通信

정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타개하기 위해선 共同商標制度의導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 資料는 共同商標制度의導入에 따른 효과를 ▲輸出中小企業의 품질향상 의욕 제고 ▲韓國商品의 世界化 조기실현 및 제품의 이미지개선 ▲中小企業에 대한 輸出商品의 부단한 개발자극 ▲대기업의 침투마인드 방지 ▲中小企業國際化의 구심적 역할등이라고 분석했다.

特許廳見學

7月19日 150名…特許廳도 見學

럭키금성그룹(會長:具滋暉) 산하 全企業特許管理要員 150名은 지난 7月19日 本會 및 特許廳을 見學하고 特許管理全般에 걸친 見聞을 넓혔다.

商標法改正專門委 員會

改正에 따른 意見 검토 위해

本會 商標法改正審議專門委員會가 지난 8月2日 오후2시 本會 理事室에서 本會 玉文碩理事 등 工業所有權專門委員 다수가 參席한 가운데 3時間동안 열렸다.

이번 工業所有權法 改正 專門委員會는 特許廳의 商標法改正에 따라 會員의 意見을 취합, 최종적으로 检討하기 위해 열렸다.

特許廳人事

書記官等一部 移動

최근 特許廳에서는 一部人事移動이 있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 人事移動 内容 ◎

〈日字順〉

| 所 屬 | 職 級 | 姓 名 | 發 令 事 項 | 發 令 月 日 |
|------------------|-------|-----|---|---------------------------------|
| 항고심판판 | 공업부기감 | 黃允清 | 공업기감으로 승진 | 6. 5 |
| 총무처 | 화공기좌 | 鄭淳城 | 심사 3국 유기화학 | 6. 11 |
| 심사 4국 | 전기기사 | 金永哲 | 전기기좌로 승진 심사 4국 전기심사담당판실 | 6. 17 |
| 항고심판소 | 통신기사 | 文粲斗 | 통신기좌로 승진. 심사 2국 심사조정과 심사 4국 전자심사담당판실 파견 | 6. 17 (85.6.19~ 85.12.18) |
| 관리국 등록과 | 행정주사 | 金振顯 | 정년퇴직 | 6. 30 |
| 심사 4국 토건심사담당판실 | 토목기좌 | 金鳳圭 | 의원면직 | 7. 3 |
| 심사 1국 의장심사담당판 | 서기판 | 李詰順 | 관리국 지도과장으로 전보 | 8. 1 |
| 관리국 자료과장 | 서기판 | 安文煥 | 심사 1국 의장심사담당판 | 8. 1 |
| 심사 4국 농수산심사담당판 | 서기판 | 元惠中 | 관리국 자료과장 | 8. 1 |
| 기획관리판실 기획예산담당판 | " | 金石煥 | 심사 4국 농수산심사담당판 | 8. 1 |
| 관리국장 | 건축기좌 | 丘大煥 | 복지 심사 4국 토건심사담당판실 | 8. 2 |
| 관리국 지도과장 | 부이사판 | 徐廷鈞 | 의원면직 | 8. 2 |
| 상공부 총무과장 | 서기판 | 申昌俊 | 상공부로 전출 | 8. 5 |
| 상공부 | 서기판 | 金淳 | 관리국장 직무대리 | 8. 5 |
| 기획관리판실 법무담당판실 | 행정사무판 | 金鎔大 | 기획예산 담당판 직무대리 | 8. 5 |
| 심사 2국 원동기계심사담당판실 | 행정사무판 | 柳寬熙 | 장기 해외훈련 | 85.8.12~ 87.6.1 |
| | 기계기좌 | 孟先鎬 | " | 85.8.22~ 87.5.26 |